

강남성모병원에서 cyclosporine 및 sirolimus 유도 후 cyclosporine 투여 철회요법의 임상 경험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내과¹, 병리학교실²

전연주¹ · 이소영¹ · 형복진¹ · 황현석¹ · 윤혜은¹ · 최영진²
최범순¹ · 김용수¹ · 장윤식¹ · 최의진¹ · 방병기¹ · 양철우¹

A Clinical Experience of Cyclosporine (CsA) and Sirolimus (SRL) Induction Followed by Cyclosporine withdrawal in Kangnam St. Mary Hospital

Youn Joo Jeon¹, So Young Lee¹, Bok Jin Hyung¹, Hyeon Seok Hwang¹, Hye Eun Yoon¹, Yeong-Jin Choi², Bum Soon Choi¹, Yong Soo Kim¹, Yoon Sik Chang¹, Euy Jin Choi¹, Byung Kee Bang¹ and Chul Woo Yang¹

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, College of Medicine, 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¹, Department of Pathology²

목적 : Cyclosporin의 등장으로 이식 후 면역반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으나 약제 자체에 의한 신독성이 문제가 되어 왔다. 신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cyclosporine 및 sirolimus 유도 후 cyclosporine 투여 철회요법을 시행한 후 급성거부반응의 발현율로 sirolimus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사용 기간 내에 발생하는 부작용의 빈도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였다.

방법 : 초기 용량은 Cyclosporin의 10 mg/kg/day과 Solumedrol 125 mg/day로 시작하고 sloumedrol은 서서히 감량하였다. Sirolimus는 신장이식 후 48시간 이내에 6 mg 부하용량 투여 시작하여 이후 1일 1회 투여하였다. 이식 후 2-4개월에는 Cyclosporin을 4-8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회하였으며 Cyclosporin과 Sirolimus는 약제 농도를 검사하며 각 시기의 목표 용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.

결과 : 9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으며 평균나이는 39세 (26- 65)였다. 공여자는 모두 생체연관공여자였다. HLA 부적합은 평균 3개였다. 현재 9명 모두 성공적으로 Cyclosporin 투여 철회 후 Sirolimus 단독 치료 중이다. Cyclosporin 용량은 이식일에 448 ± 146 mg/day, 이식 후 한달 252 ± 84 mg/day, 이식 후 3달에 194 ± 46 mg/day였다. Sirolimus 용량은 이식 후 6개월 평균 5.25 mg/day가 사용되고 있다. 1명의 환자에서 단백뇨가 발생하였으며 이식 후 6개월에 요단백/크레아티닌 비는 0.97이다. 모든 환자에서 상처감염이나 임파종은 나타나지 않았다. 9예의 증례 중 중도탈락은 없었다. 8명의 환자에서 이식 후 14일에 이식신 조직 검사 시행하였으며 급성거부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. 현재까지 BK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없었다. 고지혈증은 77%의 환자에서 발생하였다.

결론 : sirolimus는 비교적 안전하게 cyclosporin을 대체할 수 있는 약제로 판단된다.